

크누트 하임 박사, 잠언, 15강, 잠언 25-29장

© 2024 크누트 하임(Knut Hei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크누트 하임(Knut Heim) 박사와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5-29장 15번째 세션입니다.

성경 잠언 1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는 잠언 5권 25장부터 29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25장의 구절들을 모아서 상상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오나 25장을 통해 세 그룹이 모두 분산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은유의 측면과 은유를 상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상상적 독해를 해줄 것이다. 나는 또한 이 강의에 상상력이 풍부한 독서와 공상적인 독서의 차이에 대해 더 많은 성찰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겠습니다. 특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언과 일반적인 시의 상상력이 풍부한 독서를 통해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성경 본문을 유능하고 능숙하며 현명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25장부터 읽었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독서의 세 가지 예 중 첫 번째입니다.

저는 2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복수에 맞춰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들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에서 영감을 받아 그것을 다시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성경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에 포함시키고 싶은 논증과 영적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적들이 굶주리면 빵을 주어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너는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 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실 것임이라. 적들이 배고프면 먹이를 주고 마실 것을 주어라. 너는 숯불을 그들의 머리 위에 쌓아 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상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적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환대, 접대 등 다양한 맥락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으로 이 글을 읽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 심지어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폭력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관대함, 친절함, 온화함, 친절함. 여기서 적에 대한 언급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어떤 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적군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22절에 따르면 이것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자, 나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불타는 석탄을 머리에 삽으로 삽질한 다음 어떻게든 왕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머리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대우를 받는 적들은 말 그대로 그런 일을 전혀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반적인 종류의 적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친절함을 통해 적대감을 누그러뜨린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여기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보다는 개인적인 통찰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특히 목회 사역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역 조직의 다른 영역에서의 사역을 배경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강의에 참여하고 여기에서 배운 내용 중 일부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 조직에서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오면 이것, 저것, 저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신학교를 다녀온 후 몇 년 동안 목회 생활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신학 분야를 배우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때 영적인 지혜와 실제적인 전문적 노하우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교회 내에서의 학대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즘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이슈는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언에 관한 강의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교회와 교단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교회가 따라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종류의 학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슬프게도 경험했지만 유럽,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동료들과 함께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일하는 이곳 북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교회에 고용된 사람들,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시간제, 전일제 등 교회 조직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직, 때로는 그 조직이나 교회의 회원들에 의해.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람들은 단순히 학대를 견디기 위해 거의 말할 정도로 온화하고 친절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심각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여기 잠언 2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성경 본문과 신약 성경 본문을 잘못 읽은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특히

기독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신약성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강의의 이 부분을 통해 적어도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사역의 맥락에서 학대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고하고 싶은 또 다른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인데,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학대를 참아야 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증거를 직접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강권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시되 만일 네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이 법정에 가기 전에 가서 빛을 갠고 그렇지 않으면 갠으라 그들이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둘 것이며, 한 푼도 다 갠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바울이 한 조언과 함께 종종 읽히는데, 그 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기독교 법정에 가서는 안 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화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현재 수십 년간의 기독교 사역 경험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본문이 서로 결합되어 일관되게 해석되어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 수단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이 텍스트들이 학대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달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 자체로 기독교 문화 환경에서 수십 년, 어쩌면 그 이상 지속되어 온 끔찍한 학대이자 일관된 체계적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악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점은 가장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해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해자가 예수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법정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권고하시는 것은 죄인, 가해자, 학대자, 피해자는 법정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학대한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 내용이 덜 명확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학대자를 구별하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즉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참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학대하거나, 이용하거나, 훔치거나, 학대한 사람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를 잠언 18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가장 많이 믿고 있으며 저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학자들 사이에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매우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매우 강력한 합의가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경우도 그러하니 네 원수들이 주리거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가 다른 본문들에 대해 방금 말한 것에 비추어 이 구절을 상상력을 가지고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의 역동성, 인간 상호작용의 역동성, 특히 상황이 중요할 때, 상황이 위태로울 때 리더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상상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도자 지망생에게 여기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갈등의 상황, 아마도 큰 이해관계의 갈등의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서 상상되는 적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연설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는 진정이나 수동성의 권고가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듣는 사람과 아마도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고위험 위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라는 초대입니다.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따라서 여기에서 이 지도자들이 적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격려받는 것은 그들이 현관 매트로 초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친절은 실제로 매우 공격적인 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의 결과는 원수인 상대를 부끄럽게 하여 원한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시되고 있는 그림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공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고 폭력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는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대는 리더가 될 자의 친절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작동할까요? 글썬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리더는 상대방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논쟁에서 승리하도록 권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잠언은 리더가 되려는 사람이 상대의 고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해결하려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상대와 소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상실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우월한 주장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방식과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리더가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상대방이 동맹자가 되고, 논쟁의 승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담의 영향이다. 이제 나는 이 잠언에서 약속하고 있는 두 번째 결과, 즉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점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동할 때, 지도력과 관대함, 친절함으로 행동할 때, 지도자로서의 역량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때, 반대자들의 고의적인 요구나 그것이 무엇이든 굴복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자들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도울 때, 종종 모퉁이를 돌면 엄청난 영적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인 사역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써 실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을 더욱 번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의 어리석은 요구에 소극적으로 굴복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파괴할 뿐입니다. 이 특별한 잠언 그룹에 대한 묵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 발언으로 돌아가 보면,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리더십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적개심을 겪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적개심은 비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전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동료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적개심입니다. 대부분은 친절하고 관대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이것에 대해 많은 동료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잠언에서 권장하는 것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반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종종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와 바울이 권하는 대로 그들은 굴복하고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결과는 상처와 괴로움,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정서적 손상입니다. 나는 이것을 몇 번이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과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적개심을 만나고 이에 대처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둘째, 그 적개심의 대부분은 비기독교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 신자, 때로는 동료, 때로는 당신이 섬기고 사역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사역 리더십 기회가 늘어나고 리더십이 성장함에 따라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셋째, 적의 자질, 힘 및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당신이 리더십에서 더 중요할수록, 더 유능하고, 더 헌신적이며, 때로는 당신의 적들이 더 악랄해질 것입니다. 받아 들여.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사실 내 적들을 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싸울 가치가 있는 적들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그들을 물리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 때,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같은 종류의 성취 범주에 넣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작업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잠언 25장, 21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를 정확히 행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 정권을 관대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그는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루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동포 독일인들의 머리 위에 불길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를 옹호하는 강하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잠언입니다.

저는 또 다른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 구절 중 일부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독교 교회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학대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보살핌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학대를 받아들일 정도로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어온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 구절들에 대한 상상적인 읽기를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들은 무작정, 공상이 아니며, 성경 본문 자체에 기초를 두고 은유에 주의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의 더 넓은 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가해자, 학대자, 피해자와의 경쟁과 대결에서 학대받는 사람과 취약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정의에 기초합니다. 이제 나는 역시 25장에 있는 다른 잠언의 두 그룹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세 가지 예는 모두 속담에 나오는 쌍입니다. 이들 중 첫 번째, 실제로 저는 세 번째, 첫 번째를 언급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나는 이 구절들을 읽고 그에 대한 나의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과 명예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습니다.

그 두 구절을 반복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과 명예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도시와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25년 넘게 잠언을 작업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저는 이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유 이론과 은유 해석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이제 이 속담의 미묘함과 정말 중요한 영향을 포착하는 데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구절 중 첫 번째 구절인 27절은 후반부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만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8절을 더 폭넓게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27절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여보는 훌륭해요. 맛이 환상적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비타민과 모든 종류의 건강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꿀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초콜릿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을 위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이 현명한 사람은 왜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글썄요, 좋은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오래된 지혜 때문입니다.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분명합니다. 초콜릿은 매우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주 좋습니다. 스테이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실제로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

따라서 꿀은 너무 훌륭하지만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직관에 반하는 이 말은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담의 후반부는 그러하므로 명예 위에 명예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음, 명예는 좋은 거겠죠? 명예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 전체에서 특히 신생 지도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고 종종 지역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잠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넓은 사회와 자신의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성숙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것, 즉 높은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항상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승인만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리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꼬리가 개를 흔들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지지율,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데 너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리더로서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겉으로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속담을 상상 속에서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다. 이것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이것에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나친 명예를 추구하는 또 다른 극단은 물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극단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감이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조작적이고 종종 공격적이며 강압적이며 심지어 범죄적인 방법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습니다. 물론, 계층 구조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전체 상황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강력할수록 적도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전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은 지도자들이 독재자가 되어 권력에 굶주리고,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강요하고,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꿀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듯이, 명예를 너무 많이 추구해도 전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양쪽에 있는 두 가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세 번째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즉시 개인적으로 아는 한두 사람과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 뉴스를 통해 흔히 사이코패스 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끊임없이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고, 당신은 가장 놀랍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결코 당신을 비판하지 않고 당신을 위대한 리더로 확인하는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어나는 일은 그들이 이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감정적으로 유아적인 독재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 아무리 터무니없든, 아무리 어리석든,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억압적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착취하는지. 이 속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속담이 정말 멋진 속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담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그것은 직관적이고 자기 통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제력이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제력은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자제가 필요합니다. 꿀이 너무 많고, 초콜릿이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고, 성적 만족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소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속담은 권력, 특히 정치적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른 모든 영역도 이 속담에서 간접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명예와 관련하여, 이전 절에서 지도자가 받는 유혹은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더 많이 하고, 리더십에서 자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할수록 그들의 리더십은 자신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관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그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성읍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이 잠언의 전반부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은유를 좀 더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도시와 그 성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 도시는 적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적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왜 중요한가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도시를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자제력을 통해 성벽이 건설되어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자제하는 목적은 공동체에 집과 피난처,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제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 보호적이고 안전한 환경은 침식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방어 시스템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커뮤니티가 도시일 수도 있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커뮤니티는 패배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 두 잠언의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조언인 것 같아요. 이것은 자제의 문제를 다루는 중국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속담은 아마도 이것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중국 문화의 깊이와 미묘함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담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도록 조작, 강요, 협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방금 제시한 대로 이 두 구절에 대한 저의 상상적 해석을 바탕으로 제가 구성한 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셔서 당신 안에서 저를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이것은 산상수훈에 대한 약간의 암시입니다.

나로 항상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것을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아니,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더 뒤로 가서 조금 더 일찍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긴 기도의 일부입니다. 오 주님, 견고한 성벽과 넓은 문과 성채를 갖춘 견고한 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자제력을 줌으로써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집과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고 기꺼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한 다음, 제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다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에서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두십시오. 나에게 자제력을 주면 마침내 리더로서의 야망, 욕망, 욕구, 필요 사항에 대한 자제력으로 이 목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중국 속담과 마찬가지로 여기 성벽과 도시에 관한 이 속담과 일치하여 나를 모든 세속적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를 당신 안에서 무적의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로 항상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오 주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것을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에서도 산상수훈에 대한 암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도 투자하지 않는 작은 속담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두 속담과 다른 속담만으로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잠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25절과 26절에서 나누었던 이 두 잠언 바로 앞에 나오는 잠언 두 개를 읽어 보겠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찬물이 주는 것과 같이 먼 나라의 좋은 소식도 그러합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은 진흙탕 샘이나 오염된 샘과 같습니다. 그게 뭐야? 다시 말하지만, 이 은유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겉으로는 별로 거슬리지 않는 이 두 잠언에서 공유되고 있는 놀라운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감상을 엄청나게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잠언은 두 번째 잠언의 더 풍부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장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 나라의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나는 먼 나라에서 온 좋은 소식이 아마도 이 속담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고대 시대에도 국제적 원조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좋은 소식이 무엇이든 간에 먼 나라에서 온 이 좋은 소식은 감정적인 신체적, 사회적 목마른 영혼에게 찬물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사람들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쾌해요. 영양이 풍부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을 줄 의무나 직접적인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사회에 전하는 좋은 소식에 대해 여기서 불러일으키는 은유적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속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지만 마음의 선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영향력은 생명을 유지하는 자양분 상쾌한 아름다움이다. 이제 두 번째 속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은 진흙탕 샘이나 오염된 샘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우선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의논이 있는 상황을 떠올릴 것이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의 강요나 그 밖의 다른 요구에 실제로 굴복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심지어는 학대를 받아들이라는 초대로 적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속담을 읽고 그것을 따르거나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끔씩 내가 나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나는 더 맑은 봄이나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옹호한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더십 형성의 맥락에 관한 것이며 이전 속담에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역 사회에 도움이 오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며 적대적인 환경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유, 생명을 주는 물의 비유와 일치하여 나는 이제 26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맑은 샘과 깨끗한 샘에 비유된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운택하게 한다는 맥락에서 의인을 깨끗한 샘과 깨끗한 샘에 비유한 은유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 특히 리더십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순수한 샘이자 깨끗한 샘이라면, 지도자로서 그들은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맥락에서 지역 사회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 더 넓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의 보호.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잠언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면 쓸모없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흙탕이 되고 오염된 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위 의로운 사람들이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학대는 더 이상 지역 사회를 돕지 않는 압력 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인의 위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때 그들을 의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 즉 그들이 지역 사회에 이익을 주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에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더 이상 독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합니다. 흙탕물이나 오염된 샘과 같은 이 속담은 악인 앞에 굴복하는 소위 의인이라고 자주 말해야 합니다. 이 속담은 나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밤에 잠을 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크누트 하임(Knut Heim) 박사와 잠언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5-29장 15번째 세션입니다.